

# “다국적 기업서 내 능력·적성 펼쳐보고 싶어요”

### 산업인력공단 지역 대학생 대상 해외취업설명회 ‘열기’

### 작년 23명 취업 등 증가 추세... 해외인턴도 문전성시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내 적성과 능력을 알아주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8일 오후 2시 ‘K-Move 해외취업사업 설명회’가 열린 조선대 해오름관 강의실은 해외 취업을 꿈꾸는 젊은 구직자들로 북적였다. 취업준비생들은 극심한 국내 취업 경쟁 대신, 해외에서 ‘바늘구멍’을 뚫겠다는 각오로 300쪽 분량의 ‘해외취업 가이드’에 메모를 해가며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국내 기업 공채를 준비하던 강다애(여·조선대 경제학과 4년)씨는 “국내 취업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해외 취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했다”면서 “수도권 대학생에 비해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광단(조선대 중국어문학과 4년)씨는 “취업을 앞둔 학년이라 해외 취업 설명회를 찾다니며 참석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는 비자 발급 절차와 외국어 이력서를 작성하는 요령이 서툴러

서 애를 먹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전남대·순천대 등에 이은 3번째 행사로, 정부지원 해외진출 지원사업(K-Move),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정보, 각종 취업비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해외 취업자는 2011년 18명, 2012년 16명, 지난해 23명 등으로 미미하지만 꾸준한 추세다. 취업 분야도 사무·서비스 분야(9명)를 비롯, ▲기계·금속 4명 ▲전기·전자 4명 ▲건설·토목 3명 등 다양하다.

이들 상당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 ‘월드잡’(worldjob.or.kr)을 통해 해외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해외 취업자(651명) 중 광주·전남의 경우 3.5%에 불과하지만 국내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했다.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기술직을 선호하는 해외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감안, 인턴십으로 경험을 쌓은 뒤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해외 인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형편이다.

올해 해외 기업 268곳에 청년 취업준비생 700명을 3개월~1년 과정으로 세계 각국에 파견해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정부해외인턴사업과 해외 연수 뒤 취업까지 연계시켜 주는 ‘K-Move 스텝’의 경우 대기업 경쟁을 못지 않다는 게 취업준비생들의 설명이다. / 박희준기자 bhj@kwangju.co.kr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8일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부실자재(인코넬 600) 사용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한빛 3·4호기를 가동 정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치한 십자가 앞에서 ‘다음은 영광?’이라는 경고 문구를 담은 십자가를 들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 그린피스 “부실덩어리 한빛원전 가동 중단하라”

### 영광서 160개 십자가 현수막 ‘누더기 원전 그만!’ 시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8일 오전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 3·4호기 가동 정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이날 핵 발전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십자가 160개를 설치하고 ‘누더기 원전 그만!’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십자가 160개가 나타내는 것은 한빛원전이 가동을 시작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사고·고장 건수다. 그린피스가 지난 3일 서울에서 한빛 3·4

호기 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영광에서 또다시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한빛 3·4호기가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로 가동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린피스의 주장대로 한빛 3·4호기의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와 원자로 헤드 등에는 ‘인코넬 600’이라는 부실 자재가 들어간 탓에 현재 전열관 결함이 계속 발견되고 원자로 헤드에도 균열이 진행 중이

다. 설계 수명의 절반 수준에 이르러 인코넬 600 소재가 들어간 원전 핵심 설비에서 균열 등 각종 사고·고장이 잇따르는 등 원전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탓에 원전 사업자 측이 국민 안전은 무시한 채 매출식 처방만 남발하고 있다는 게 그린피스 측의 지적이다.

그린피스와 원자력 전문가들은 한빛 3·4호기가 지진이나 테러 등 외부적 요인 없이도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1곳에서 균열이 발생,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넘어서는 끔찍한 재앙이 정상 작동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다수의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동시 파손될 경우 증기발생기 1, 2차 측의 압력 차로 안전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방사성 물질(냉각재)이 다량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에 이어 종국에 가서는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재 손실(고갈)로 인한 노심이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수준의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9 | 해질 17:20 | 다음날 해돋이 09:20 | 다음날 해질 20:02

**감기조심!**  
서해북부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2/9	보성	맑음	-3/7
목포	맑음	-1/7	순천	맑음	-1/9
여수	맑음	1/9	영광	맑음	-4/7
나주	맑음	-3/8	진도	맑음	0/8
완도	맑음	0/8	진주	맑음	-4/6
구례	맑음	-4/8	군산	맑음	-4/5
강진	맑음	-1/8	남원	맑음	-5/6
해남	맑음	-1/8	흑산도	맑음	5/8
장성	맑음	-4/8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0.5
	면바다	북~북동	1.0~1.5	북~북동	0.5~1.5
남해	남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6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48	21:26	03:30	16:14
여수	밀물		썰물	
	10:50	22:51	04:18	16:51

**주간 날씨**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	☁	☁	☁	☁	☁	☁
2/9	3/7	0/6	-1/4	-2/5	0/4	-2/3

## 담양 펜션화재 전·현직 공무원 8명 입건

10명의 사상자가 난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펜션 일부 건축물이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공무원 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담양경찰청은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담양 황토흙집펜션의 건축 허가를 내주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김모(44·6급)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국유지 등을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담양군 대덕면 황토흙집펜션에 건축 허가를 내주고 마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온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담양군청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도청으로 발령이 났고 6명은 현재 담양군청에 재직 중이며 1명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해난사고 대부분 운항과실·정비불량”

전남도 작년 71건 분석... 기상악화는 단 2건 불과

해난사고의 원인의 대부분이 운항 과실과 정비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난사고 71건을 발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운항 과실 39건(55%)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정비 불량 30건(42%)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상 악화에 의한 해난사고는 단 2건(3%)뿐이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발생한 59건의 해난사고 가운데 정비 불량 36건(61%)으로 가장 많고, 운항 과실이 23건(39%)의 비중을 보였다. 올해는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

사고 선박 대부분이 여업인의 안전조업 의식 결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83일간을 ‘어선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경품 행사

##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 기념

행사기간 :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자격대상자(경품 응모권 및 기념품 증정(축석복권기념품 포함))

**선물 1**  
(개별시 명품 응모권 증정)

- 1등: 황금열쇠수금1명(1명)
- 2등: 가전제품 100만원 상용권(2명)
- 3등: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등인 1인 포함)3명
- 4등: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선물 2**  
(기념품(택1))

- [핸드크림]
- [치약세트]

**선물 3**  
(개별시 축석복권 증정(100%당첨))

- [풍장지갑]
- [클립스틱]
- [세리믹코팅 냄비]

**자력 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할당고액
- 정기간 15000원 이상 가입고액
- 매출 1,000만원 이상 실적고액
- 경영계획, 자문사보행 가입고액
- 전자금융 신규자
- 자문사 3년 이상 신규자
- 체고카드 신규자(최이상 이용고액)
- 관공추천원리차 점성사표 및 신용 개제
- 참가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062/223-8007, 232-7251 대인동 한미소방 1층  
충장지점 : 062/223-7217, 223-7218 충장로 5가 입구

##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세대는 단리도 아닙니다. 착한 소갈비

###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작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갈비는 불경기용 맞춤브랜드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